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4. 8(금)	
		작 성 · 문 의	경제조정실 해양교통정책과 과장 송기진 / 사무관 이헌희 (Tel. 044-200-2239)
* 엠바고 : 4.8(금) 10:30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	

## 정부의 최우선가치인 국민안전, 철저한 현장점검이 필수

- 황 총리, 국가안전대진단 현장(강동대교) 찾아 대형교량 안전성 점검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4월 8일(금) 오전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시 강동구를 잇는 강동대교를 방문하여 '국가안전대진단'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

\* 참석 : 최정호 국토부 2차관,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, 박상욱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본부장, 조경규 국무2차장 등

○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민관이 참여하여 대형건축물·다중이용시설·산업단지·건설공사장 등 40만 8,488개소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중으로,

○ 황 총리의 이번 현장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이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

○ 황 총리는 특히,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이 되는 시설물 중에서 이용자가 많은 대형교량을 선택했다.

- 황 총리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목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,
  - 지난해 연말 발생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를 예로 들면서, 교량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에서 조그마한 잘못도 인명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,
  - 교각, 상판 등 주요 부분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
  
- 황 총리는 안전은 정부가 챙겨야 할 최우선 가치이고, 그 첫걸음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며,
  -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게 면밀한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수·보강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
  - 아울러, 현장 점검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국가안전대진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
  
- 황 총리는 현장 점검자와 함께 교량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고소 작업차에 시승하여 교량 상부 및 하부와 배수시설, 상판 등을 직접 살펴보았다
  - 이와 함께, 모니터를 통해 강동대교 교각의 수중촬영 영상을 확인하며 교량안전 체크포인트를 하나 하나 점검하였다

※ (붙임) 국가안전대진단 개요

□ 개요

○ 주관 및 기간 : 국민안전처 주관, '16. 2.15 ~ 4.30

- 민·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집중적인 안전점검 기간으로 운영

\* 국가 안전대진단

- '14.8.25,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

-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및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점검

- 민관 합동 협업 및 점검결과를 안전산업 수요로 활용

\* 추진체계 : **국무총리** ⇨ **안전처장관** ⇨ **각 부처청**

□ 주요내용

○ 정부주관 안전점검(Top-down) : 안전진단 기간 중 실시

구 분	점검주체	점검분야
민관합동점검	정부 및 민간 전문가	부처 및 지자체 소관 모든 시설물*
정밀안전점검	민간 진단 전문기관	합동점검 결과 개선필요 위험시설

\* 대형건축물, 다중이용시설, 산업단지, 건설공사장, 학교, 교통시설물, 자연 재난취약지 등

○ 국민의 자발적 안전신고(Bottom-up) : 연중 실시

- 국민들이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하고 정부가 처리하는 체계

\* 신고접수를 위한 「안전신문고」 포털 및 앱 구축·활용(국민안전처)

○ 도로공사 안전대진단 대상 :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량, 터널, 위험사면 등 603개소

-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, 교량의 안전등급 C 이하 모든 시설물과, A·B 등급이면서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, 특정관리대상시설 등